

개인 행위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 대한 공간적 고찰: 고령친화산업의 제도구축 네트워크를 사례로*

구양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지식창출 과정(SECI/ba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해외탐방단,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협의회, 교육프로그램, 사이버공간의 포럼 등은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만남의 장(시작의 장,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 장, 실행실습의 장)을 통해서 개인 행위주체들은 동일 지역에 입지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개인의 이동성을 이용한 일시적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개인 행위주체들은 대면접촉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가상공간에서의 만남이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요어: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 형성 과정, 지식창출 과정,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 시작의 장,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 장, 실행실습의 장, 이동성, 일시적 지리적 근접성

1. 서론

경제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 제도와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제도를 형성하는 요소와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특히 사회학에서의 사회구조와 행위주체간의 이중성과 양분성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과학 전반에서 구조적 접근으로부터 행위성 접근으로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행위성 접근을 옹호하는 견해들은 구조적 설명이 불완전한 것이며, 미시적 기

초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기홍, 1994). 그러나 이것은 구조(structure)와 행위성(agency)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두가지 모두 중요한 연구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 그리고 진화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의 핵심이기도 하다 (Dicken *et al.*, 2001; Murphy, 2003).

경제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주체인 네트워크도 구조와 행위성의 두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는 제도(institution)로, 행위성은 행위주체(actor)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된다 (Murphy, 2003).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관점은 이러한 구조와 행위성을 통합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한·일 경제지리학회 공동 심포지엄: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지리학 발전과 과제”에서 발표되었음 (청주대학교, 2008년 5월 17일).

** 국토연구원 POST-DOC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구에 있어서 구조-행위성의 차원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행위성 측면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진화경제지리학에서는 개인, 기업 등의 미시적 분석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성에 관심을 가지고 고령친화산업을 사례로 개인 행위주체들(personal actors)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네트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했으며, 여러 기관들은 관련사업의 일부로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구양미, 2008). 고령친화산업의 팽이에서 제도구축이 중요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제도구축이 가장 중요한 지식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개인 행위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지식창출 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고, 이것의 공간적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2. SECI/ba 모델

Nonaka and Takeuchi(1995)를 중심으로 발전된 지식창출 모델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의 ‘지식 전환(knowledge conversion)’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이 창출됨을 설명한 모델이다(Nonaka *et al.*, 2000; Nonaka and Toyama, 2005). 이러한 학습 사이클(learning cycle)은 사회화(socialization), 외부화(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4가지 과정(SECI)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ba’라는 지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장(ba: 場)의 개념이 덧붙여져 SECI/ba 모델이 되었다.

지식 전환에 대한 이론은 원래 기업에서의 지식창출에 초점을 둔 이론이었으나, 이것이 지역 차원에까

지 확장되어 지역발전에도 연구에서도 나타난다(Lawson and Lorenz, 1999; Kostiainen, 2002).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지식 전환에 대한 공간적 차원의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식의 국지화, 세계화와 연결되기도 한다(박삼욱, 2002). Kostiainen(2002)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행위주체들의 발전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고찰에 SECI/ba 모델을 적용하였다. Harmaakorpi and Melkas(2005)와 Pekkarinen and Harmaakorpi(2006)에서는 비즈니스 핵심 프로세스에서 지역의 여러 행위주체 혁신네트워크의 활동적 창출과 SECI/ba 모델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출된 지식은 조직이나 지역에 착근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화하여 조직이나 지역에 착근시키고, 착근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개인 행위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창출 과정에서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개인 행위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Bunnell and Coe, 2001;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한편, SECI/ba 모델을 네트워크 형성에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지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중요하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지식은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또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는데, 장(場)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Nonaka and Konno, 1998). 장(場)은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도 한다. 이와같이 지식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가상공간까지도 포함한다(Nonaka *et al.*, 2000). Kostiainen(2002)은 SECI/ba 모델을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장(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도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 그룹의 하나인 ‘발전 네트워크(development network)’인데, 이것은 도시 지역의 발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행위주체들을 의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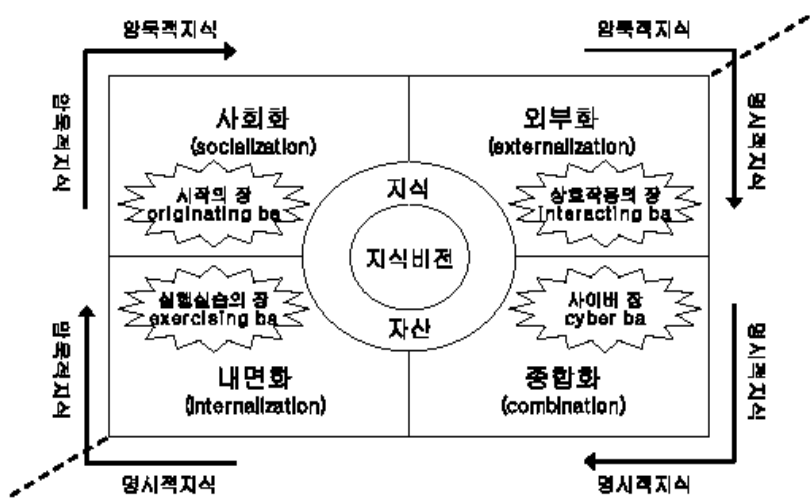


그림 1. SECI/ba 모델

출처: Nonaka and Konno, 1998; Kostainen, 2002에서 수정.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행위주체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프로세스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 정책이 성립됨을 밝혔다.

4가지 지식 전환 과정과 이에 따른 장(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naka and Konno, 1998; Kostainen, 2002) (그림 1). 사회화는 암묵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때에는 혁신 네트워크의 행위주체간 신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친분을 쌓고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교류의 장인 시작의 장(originating ba)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들의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인데, 이를 위해 이들이 모여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분을 쌓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화는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혁신 네트워크 행위주체들의 생산적인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해진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조직하는 등의 노력이 해당되고 이러한 장을 상호작용의 장(interacting ba)라고 한다.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여 혁신적 상품, 서비스와 프로세스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집합적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종합화는 명시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된 명시적인 지식이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인터넷 기반의 가상 환경인 사이버 장(cyber ba)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혁신 네트워크의 행위주체간에 정보를 나누고 일정과 계획의 공유가 가능하다. 내면화는 명시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특정 주제를 가진 그룹 교육이나 여러 기관들 간에 전문인력 교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실행실습의 장(exercising ba)로 표현한다.

3. 분석대상 및 방법

고령친화산업은 실버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예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초기 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지식창출의 핵심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어떻게 정의, 분류하고 표준화할 것인가, 산업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어떤 행위주체들간의 관계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공동의 발전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여러 조직 행위주체(기관)¹⁾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특히 그러한 조직에 속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행위주체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행위주체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지식창출 과정인 SECI/ba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형성과정은 기업, 조직 행위주체 단위보다 더 미시적인 개인 행위주체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것은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도 결국은 개인적 차원의 비공식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초기형성 단계에서 관련 조직에 속한 행정가나 전문가, 학자 또는 기업가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행위주체들이 시작의 장,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 장, 실행실습의 장을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개인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의 핵심 인물, 주요 프로젝트 참여자, 2004~2007년의 33개 주요 세미나 및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사람 또는 이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는 개인 행위주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총 136명의 리스트가 확보되었고, 이들에게 각각 PA001~PA136까지 ID를 부여하였다. 이 중에서 주

요기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인물 25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파악하였고, 다양한 세미나 및 행사에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면서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Clark(1998)는 심층인터뷰조사(in-depth interview or close dialogu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응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경험적 분석과 다양성 파악이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심층인터뷰조사는 행위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실제 실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고 따라서 네트워크에서의 행위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지리학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형성과정: SECI/ba 모델의 적용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네트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여러 기관들은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한 사업 주제로 다루었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의 초기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제도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제도구축이 가장 중요한 지식창출이었다. 이에 2004년 이후의 제도구축과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SECI/ba 모델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개인 행위주체들이 시작의 장,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 장, 실행실습의 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는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1) 사회화(socialization)와 시작의 장 (originating ba)

암묵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화가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행위주체간 신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친분을 쌓고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시작의 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시작의 장은 지식창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나타나고 그 핵심은 암묵적 지식의 전환에 있어 핵심인 물리적인 대면접촉 경험이다 (Kostiainen, 2002).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과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이해가 생겨난다. 즉, 향후 네트워크를 위한 신뢰를 조성하고 암묵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시작의 장이 중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한 제도구축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러 행위주체들이 모여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분을 쌓는 여러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Nonaka and Takeuchi (1995)는 이것의 예로 혼다(Honda)의 ‘브레인스토밍 캠프(brainstorming camp)’를 들었는데, 이것은 직장의 일터 밖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리조트 같은 곳에서 온천욕을 함께 즐기고 같이 식사와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시작의 장의 예로는 함께 스포츠를 즐기거나 콘서트나 공연을 보는 신체적, 문화적 활동의 공유가 있다. 또한 견학이나 시찰을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비공식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포함된다 (Kostiainen, 2002).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업이나 업무를 논의하

기 이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야 이후의 공동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형성은 불완전한 정보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신제·이희열, 2007).

그 사례로 첫째, 고령친화산업 형성 초기의 해외 탐방단이나 시찰단을 들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형성의 초기에는 해외 탐방단이나 시찰단이 주요 개인 행위주체들의 만남과 친분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해외 탐방단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에 관련이 있고 관계가 되는 핵심 인사들만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핵심 주요 인사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실버산업협회는 이러한 해외 주요 기관들을 시찰하는 탐방단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초기단계에 관련 행위주체들이 만나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매년 9월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국제복지기기전(HCR)에 ‘일본 실버산업시설 시찰단 파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찰단을 조직하고 있다 (표 1). 이 협회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 행위주체들의 만남과 친분 형성에 시찰단이라는 방법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에 동경 시찰단에는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PA010 회장님과 PA055 사장님 등이 가셨어요. 2005

표 1. 대한실버산업협회의 해외 탐방단 추진 현황

회차	날짜	장소	비고
1차	2005년 3월 10-12일	일본 실버서비스전	2박3일
2차	2005년 9월 25-28일	일본 동경 국제복지기기전(HCR)	3박4일
3차	2006년 9월 27-30일	일본 동경 국제복지기기전(HCR)	3박4일
4차	2007년 10월 3-6일	일본 동경 국제복지기기전(HCR)	3박4일

자료: 대한실버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

년 9월 동경 복지기기전에는 3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충남 고령친화RIS사업단의 PA008, PA009 교수님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PA020 박사님도 가지구요. 이 시찰단에서 만나서 3박 4일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한실버산업협회 관계자)

“2005년 9월에 대한실버산업협회가 주관이 되어 일본 실버산업관련 시설과 박람회 탐방이 있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유명 복지기기전인 HCR을 보고, 실버타운을 방문하고, 복지용구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이 탐방단에서 PA008 교수님과 PA020 박사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고령친화RIS사업단과 협력하게 되었고, 종합체험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작년(2006년)에는 PA020 박사님이 종합체험관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팀의 일정을 코디네이터해 달라고 해서 4월 오사카 Barrier Free 박람회와 연계하여 다시 탐방단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님들과 PA012 팀장님, PA008 교수님, PA010 회장님, 기술표준원의 PA053 박사와 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PA024 박사님, PA048, PA055 대표님들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원래 서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 탐방으로 서로 친해진 것 같아요.” (S사 대표)

“PA012 팀장님과는 그전에도 안면은 있었는데, 일본 박람회에서 정식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업체들까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PA010 회장님도 같이 참석했지요.” (고령친화RIS사업단 단장)

두 번째 시작의 장의 사례로는 충남의 고령친화RIS 사업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워크숍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2). 이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국제 워크숍 개최는 사회화, 시작의 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령친화RIS사업단은 고령친화산업 형성의 시작단계인 2004년 중반부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과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비공식적인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었지만, 온라인 포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면접촉에 있어서는 시간이나 자금 측면에서 부족하였고, 따라서 이 두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서로 보완해 나가면 고령친화산업 제도구축 과정의 사회화 단계의 시작의 장을 구축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발표와 정보교환을 통한 외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친화산업 관련된 여러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경제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의 멤버들이었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포럼이 오프라인 모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에는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표 2.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워크숍 현황

회차	명칭	날짜	장소	참석자수	비고
1차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숍	2005년 5월 19-20일	안면도 O리조트	100명	
2차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국제 워크숍	2006년 6월 9-10일	덕산 S리조트	140명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
3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국제 워크숍	2007년 6월 22-23일	덕산 S리조트	150명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외시장 진출전략

자료: 고령친화RIS사업단, 2007.

두 조직 행위주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기 오면 이쪽 분야의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날 수 있고, 발표와 정보를 듣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쪽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보고 얼굴은 모르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삼삼오오 모여서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숙박 비용도 해결해 주니까 좋죠.” (2006년 2차 워크샵 참석자)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특징은 개인 행위주체들이 실제 일하는 일터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요 활동무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모여서 친분을 쌓는 활동을 하는 과정이 이후의 지식창출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브레인스토밍 캠프’나 해외 탐방단, 워크샵 모두 새로운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모여서 친분을 쌓는 시작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시작의 장이 출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창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것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이한 형태의 잠재된 조직 문화도 어려움을 만들어 낸다.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트워크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도구축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조직 문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점차 네트워크 관계가 공고화 되면서 상이한 조직간에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어려워진 측면이 생겨났다. 초기에 제도구축 네트워크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미 상호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에 이후의 네트워크 형성과 분화에 있어 유리하지만 후발진입자들은 사회화 과정이 이전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단기간에 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2) 외부화(externalization)와 상호작용의 장(interacting ba)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외부화에서는 네트워크 행위주체들의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조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이 중요한데, Lawson and Lorenz(1999)은 이 단계를 ‘주요 인식론적인 순간(key epistemological moment)’으로 보았다.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은 암묵적 지식인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의 기술 및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 팀이다. 시작의 장에서 창출된 분위기와 신뢰만으로는 지식창출에 있어 충분치 않고, 이러한 공유된 암묵적 지식을 가진 개인 행위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착근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주제와 그 주제에 맞는 개인 행위주체들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각 개인 행위주체들을 참여시키고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Kostiainen, 2002).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여 혁신적 상품, 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Harmaakorpi and Melkas, 2005). 상호작용의 장과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포럼(forum)은 유사한 개념이다 (Kostiainen, 2002). 포럼은 논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워킹그룹, 토의그룹, 싱크탱크,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기반의 채팅이나 토의채널들도 포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에서는 여러 조직 행위주체(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중요한 상호작용의 장을 제공했으며, 여기에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

다.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 행위주체들이 꽤 널로 참여하고 있다 (표 3). 여기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외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만남을 통해 다른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부가적인 주제에 대한 외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세미나 외에도, 고령친화산업 관련 여러 사업에 있어서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관련 사업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2005년에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정책 포럼에서 PA008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PA008 교수님도 고령친화용품 관련된 협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업체 대표님들과 함께 협회를 창설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들이 오가게 되어 더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회장)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관련해서 저희 협회와 동의대학교, 재활공학연구소가 자주 협의를 합니다. 저희 협회는 민간표준을 담당하고 나머지 두 기관은 국가표준을 담당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대상 14개 품목을 나누어서 표준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게 되죠.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도 하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팀장)

“PA024 박사님과는 2002년에 대학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세미나에서 만나게되어 실버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기도 했지요. PA010 회장님과는 2005년 7월경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공청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고령친화RIS사업단 단장)

또한 개인 행위주체 중에서 핵심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도 만들어져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외부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업자원부와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발전연구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나름의 목적으로 가지고 협의회를 구축하였는데, 두가지 협의회에서 모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미나와 같은 공개된 상호작용의 장 보다는 이러한 비공개 상호작용의 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정책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템들이 창출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 초부터 시작하여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한달에 1회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인사들이 모여있는 만큼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참여하는 모임은 이외에도 산업자원부와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과학기술부에서도 정책위원회 형태로 노인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 기술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 모임에는 과학기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모입니다.” (고령친화RIS사업단 단장)

“일본 탐방단에 같이 가셨던 PA008, PA020, PA010, PA012 등 이런 핵심 멤버들이 거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연구회’에서 고령친화산업관련 정책 관련 회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사 대표)

3) 종합화(combination)와 사이버 장(cyber ba)

종합화는 명시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된 명시적인 지식이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인터넷 기반의 환경에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장을 통해 네트워크 내의 행위주체간의 정보를 나누고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표 3.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세미나 및 심포지엄

일시	명칭	주관기관	장소
2004.11.22	제1회 한국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대한실버산업협회	서울
2005.02.25	고령친화 복지기기 포럼 및 워크샵	고령친화RIS사업단	대전
2005.05.19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샵	고령친화RIS사업단	충남
2005.07.22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실버산업협회	서울
2005.11.18	아시아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 심포지엄	고령친화RIS사업단	광주
2005.11.18	고령친화산업 심포지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광주
2005.12.07	제2회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대한실버산업협회	서울
2005.12.25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세미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2006.01.20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한중일 국제워크숍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부산
2006.02.28	고령친화 복지기기 워크샵 및 포럼	고령친화RIS사업단	서울
2006.05.23	실버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과제	강남대실버산업HRD사업단	경기
2006.06.09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국제 워크샵	고령친화RIS사업단	충남
2006.06.10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공청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서울
2006.06.14	고령친화용품산업 동향 및 발전방안 국제심포지엄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서울
2006.07.19	고령친화용품 정의 및 품목분류를 위한 전문가 및 WG회의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경기
2006.07.19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품질표시/지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서울
2006.08.21	제1회 고령친화용품 전문가위원회 및 산학연관 협의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경남
2006.09.11	고령친화산업 선진화 심포지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2006.09.21	고령친화산업 정책 세미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기
2006.09.22	아시아고령친화산업포럼 2006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경기
2006.11.30	세계 실버산업 현황 및 진출전략 세미나	고령친화RIS사업단	광주
2007.02.27	제2회 고령친화용품 산학연관 협의회 및 전문가위원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부산
2007.03.20	2007 실버산업동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서울
2007.04.07	제1기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고령친화RIS사업단	대전
2007.04.21	인제대학교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과정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부산
2007.04.26	고령친화 산업정책 및 복지용구 세미나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서울
2007.05.25	제3회 고령친화용품산업 전문가위원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충남
2007.06.2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국제 워크샵	고령친화RIS사업단	충남
2007.06.28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전략 정책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2007.07.20	제4회 고령친화용품산업 협의회 및 전문가위원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서울
2007.08.10	한중일 고령친화용품 내수시장 활성화전략 국제세미나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서울
2007.09.06	고령친화복지용구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기
2007.09.08	아시아 고령친화산업포럼 2007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경기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명시적 지식이 기존의 지식과 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Kostiainen, 2002). 명시적 지식의 조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네트워크, 그룹웨어 등이 그 예이다. 사이버 장은 형성하기가 가장 쉬운 장으로서 명시적 지식의 영역에서 작동된다.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업 DB와 전문가 DB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표 4). 고령친화산업 관련 DB 구축과 제공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여러 기관에서 각자 나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이후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여러 사업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내용이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킹, 특히 그것을 위한 홈페이지와 DB구축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웹사이트는 네트워크 외부의 정보채널 역할을 할 수 있고, 외부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령친화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 외에도,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포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을 들 수 있는데, 이 포럼은 오프라인 소모임에서 출발했다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2007년 9월 현재 회원수 4,500여명의 온라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많은 정보를 주

고받고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과 세미나에서의 대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체 종사자,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있는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형성된 조직 행위주체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초기 형성단계에서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랐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가입했더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그때 세미나나 이런 홍보도 다 되어 있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 이 곳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원)

“실버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명실상부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업단을 시작하면서, 이 포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여러 관련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실버산업 태동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사업단에서 RIS사업 2차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같이 하는 업체들을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고령친화RIS사업단 단장)

표 4.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온라인 사이트

운영기관	사이트 명칭 및 종류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RIS사업단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대한실버산업협회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www.esenior.or.kr) 홈페이지 및 DB (www.siris.or.kr) 정보포털 하이시니어 (www.hisenior.com) 홈페이지 및 DB (www.kspa.org) 실버산업길잡이 (guide.kasinet.or.kr)	기관 공식운영 사이트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의료기기산업전문가포럼 시니어마케팅포럼	홈페이지 및 게시판 (www.seri.org/forum/silver) 홈페이지 및 게시판 (www.seri.org/forum/redesign) 홈페이지 및 게시판 (www.seri.org/forum/seniormarketing)	비공식 포럼

4) 내면화(internalization)와 실행실습의 장(exercising ba)

내면화는 명시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특정 주제를 가진 그룹 교육이나 여러 기관들 간에 전문인력 교환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식창출 과정에서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개인 행위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Bunnell and Coe, 2001;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실습의 장인데, 멘토와의 훈련, 실전에서의 훈련(on-the-job training),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활동적인 참여 등이다.

창출된 명시적 지식을 실행에 적용하는 것과 내면화는 그룹 작업에 기반을 둔 사회화나 외부화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 프로세스이다. 내면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 작업 절차를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려는 개인의 의지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교육 활동이나 멤버들 간의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멘토링은 실질적인 협력 활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여

기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신뢰 없이는 실행실습의 장에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이에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와 지식의 내면화가 증진된다. 공동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할 수도 있고, 따라서 암묵적 지식의 이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Kostiainen, 2002).

이러한 실행실습의 장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시설투어를 들 수 있다. 고령친화RIS사업단에서는 2006년에 6차에 걸쳐서 시설조사 및 시설투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표 5). 이 프로그램은 시설 견학을 통해서 시장조사 및 사업 관련정보를 획득하고, 업체나 연구소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설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령친화 주거 및 요양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의 제조 및 연구 분야에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호교류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실행실습의 장을 마련하고 지식창출의 내면화 과정을 지원했다. 대표적인 경우로 충남 고령친화RIS사업단의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과 부산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의 참여기관인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전문인력양성센터의

표 5.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시설투어 현황

회차	날짜	내용	참석자
1차	2006. 01. 19	C요양원, K전문노인병원	32명
2차	2006. 02. 09	E녀싱홈, EG노인요양센터, K녀싱홈, S노인시설	23명
3차	2006. 03. 30	I요양원	14명
4차	2006. 04. 28	S시니어스녀싱홈, 재활공학연구소	15명
5차	2006. 05. 12	실버토피아박람회	35명
6차	2006. 06. 27	논산 노인전문병원	15명

자료: 고령친화RIS사업단, 2007.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다. 인력양성은 고령친화산업 정책에서 주요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용품 및 기기의 R&D 인력에서부터 복지용구 상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관련 주요 인사들이 강의를 하고 참여자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연 과정에서 개인들은 명시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고, 토론을 통해 지식을 외부화하기도 한다.

5. 공간적 고찰: 고령친화산업 개인 행위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친화산업의 제도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개인 행위주체들은 시작의 장,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 장, 실행실습의 장을 통해 연계를 맺게 되었다(그림 2). 고령친화산업 개인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는 해외 박람회의 시찰이나 탐방을 위한 모임이나,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의회를 통한 만남이 가장 컸고, 이것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은 해외 탐방단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탐방단은 이들이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작의 장인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인 일본 등지를 보면서 실제로 보고 느끼는 실행실습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핵심 인사들이 이러한 시찰을 통해서 서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은 상호작용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개최된 여러 가지 세미나, 심포지엄, 협의회 등이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탐방단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인지적인 장벽이 있지만, 세미나의 경

우에는 인지적 장벽 없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관련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각종 세미나에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세미나는 이 산업계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의 장이 되어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주요 정보를 통해 핵심 정보와 지식의 상호작용의 장이 되어 외부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들은 명시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내면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 창출과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참여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밀하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의 장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이러한 장은 개인 행위주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지리적 근접성 개념(geographical proximity)과 연결된다. 지리적 근접성이 곧 암묵적 지식의 교환과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식창출의 장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Boschma, 2005).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행위주체의 ‘이동성(mobility)’(Torre and Rallet, 2005)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교통의 발달로 개인의 이동거리는 넓어지고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개인 행위주체들의 유비쿼티(ubiquity), 노마디즘(nomadism)으로 인해 이들은 국지적 영역 내에서 활동하다가 동시에 상이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영역 내에서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행위주체들과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되었다. 행위주체가 어디에 집적되어 있는가 뿐 아니라, 개인 행위주체들의 이동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일시적 지리적 근접성(temporary geographical proximity)’,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로 표현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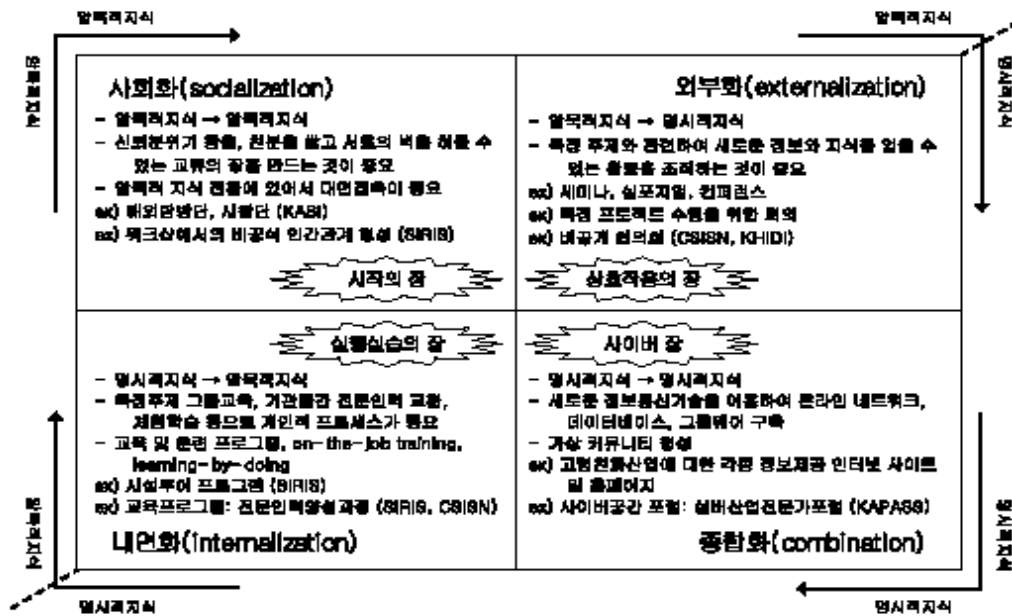


그림 2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 형성 과정

주: KASI: 대한실버산업협회, SIRIS: 고령친화RIS사업단, CSISN: 고령친화응용산업화지원센터,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APASS: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있다. Glückler(2007)는 교통기술과 이동성 증가로 인해 지리적 근접성이 지속적 공동입지(co-location)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단시간의 만남(co-presence in ephemeral encounters)’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속적 공동입지와 마찬가지로 무역박람회, 세미나, 회의에서의 만남이 대면접촉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형성의 장은 이러한 일시적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 행위주체간의 대면접촉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은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에서 개인 행위주체들의 자생적 발생 모임으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은 친분을 쌓는 시작의 장의 역

할을 하고,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실험실습의 장이 되기도 하여 이를 통해 사회화와 내면화가 이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특징은 사이버 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한 정보교환과 DB구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가고 또 새로운 정보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를 통한 지식의 종합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인터넷, IT 등의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대면접촉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의 장이 구축되었다. 여기에서 정보의 교류 뿐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개인 행위주체들이 향후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공식협력을 맺는 등 발전된 관계를 갖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포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개인 행위주체가 역사가 짧고 네트워크 구축이 미약한 기관에 취직하게 되어 그 기관과 다른 고령친화산업 관련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PA015는 이 포럼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에 픽업되어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 센터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실버산업계와 연계가 거의 없었는데, PA015가 가게 되어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의 업계 네트워크와 연결시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부산의 관계자들을 서울에서 하는 세미나 등에 데려와서 서울의 포럼 인맥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고령친화RIS사업단 단장)

6.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구축을 위한 개인 행위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ECI/ba 모델의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 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지식 전환의 각 과정에 따라 개인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 지식창출,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졌다. 개인 행위주체들이 친분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고(시작의 장), 학습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고(상호작용의 장), 인터넷기반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증진되고(사이버장),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간의 상호교류와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실행실습의 장) 과정이 나타났다. 해외탐방단, 워크샵, 세미나, 컨퍼런스 등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개인 행위주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개인의 이동성은 일시적 클러스터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한 대면접촉은 상호 신뢰를 창출하여 이후의 공식 협력이나 프로젝트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모임은 개인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산업을 사례로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SECI/ba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개인 행위주체의 미시적 단위에 초점을 둔 것에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행위성 측면에 초점을 둔 더 분석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주

- 1)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조직 행위주체(기관)를 살펴보면 정책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의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는 고령친화용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험인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하고 있다. 충남의 고령친화RIS사업단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project)으로 선정되어,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마케팅 등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과제개발 및 실행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대한실버산업협회는 2004년에 출범한 협회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생긴 최초의 협회이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는 2006년 정부의 본격적인 고령친화산업 정책 이후에 생겨난 협회로 기기 및 용품관련 업체에 초점을 둔 협회이다. 한편, 민간의 자생적 조직으로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있는데 온라인 소모임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령친화RIS사업단, 2007, 충남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 구양미, 2008, “고령친화산업 행위주체 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게재확정.

- 박삼옥, 2002, "네트워크세계의 산업: 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 *대한지리학회지* 37(2), pp.111-130.
- 성신제 · 이희열, 2007,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2(4), pp.560-581.
- 이기홍, 1994,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28, pp.163-194.
- Boschma, R. A., 2005, "Proximity and innovation: a critical assessment," *Regional Studies* 39(1), pp.61-74.
- Bunnell, T. G. and Coe, N. M., 2001, "Spaces and scales of innov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pp.569-589.
- Clark, G. L., 1998, "Stylized facts and close dialogue: methodology in econom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1), pp.73-87.
- Dicken, P., Kelly, P. F., Olds, K. and Yeung, H. W. C., 2001, "Chains and networks, territories and scales: towards a relation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global economy," *Global Networks* 1(2), pp.89-112.
- Glückler, J., 2007, "Economic geography and the evolution of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5), pp.619-634.
- Harmaakorpi, V. and Melkas, H., 2005, "Knowledge management in regional innovation networks: the case of Lahti, Finland," *European Planning Studies* 13(5), pp.641-659.
- Kostiainen, J., 2002, "Learning and the 'ba' in the development network of an urban reg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10(5), pp.613-631.
- Lawson, C. and Lorenz, E., 1999, "Collective learning, tacit knowledge and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Regional Studies* 33(4), pp.305-317.
- Murphy, J. T., 2003, "Social spa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East Africa: deconstructing the logics of industry networks in Mwanza, Tanzani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2), pp.173-198.
- Nonaka, I. and Konno, N., 1998, "The concept of 'ba': building a foundation for knowledge cre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3), pp.40-54.
- Nonaka, I. and Takeuchi, H., 1995, *The Knowledge 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naka, I. and Toyama, R., 2005, "The theory of the knowledge-creating firm: subjectivity, objectivity and synthesi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4(3), pp.419-436.
- Nonaka, I., Toyama, R. and Nagata, A., 2000, "A firm as a knowledge-creating entity: a new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the firm,"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9(1), pp.1-20.
- Pekkarinen, S. and Harmaakorpi, V., 2006,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networks: the definition of an age business core process in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al Studies* 40(4), pp.401-413.
- Torre, A. and Rallet, A., 2005, "Proximity and localization," *Regional Studies* 39(1), pp.47-59.
- 교신: 구양미,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Tel: 02-880-6358, Fax: 02-877-7656, E-mail: yangmi@snu.ac.kr
- Correspondence: Yangmi Koo,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591-6, Gwanyang-dong,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712, Korea, Tel: 82-2-880-6358, Fax: 82-2-877-7656, E-mail: yangmi@snu.ac.kr

최초투고일 2008년 9월 1일
최종접수일 2008년 9월 15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1, No.3, 2008(334~349)

A Spatial Study on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of Personal Actors: The Case of Institutional Building Networks in Industries for the Elderly*

Yangmi Koo**

Abstract : In this study,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of personal actors in industries for the elderly was analyzed. This process is applied to the knowledge creation model of the SECI (Nonaka-Takeuchi learning cycle), that is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There are some kinds of opportunities to interact in these industries in the forms of field survey teams to overseas, some seminars and symposiums, many kinds of meeting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rade fairs and on-line forums. These palces(ba) - originating ba, interacting ba, cyber ba, exercising ba - played great roles in the formation of personal actor networks. Personal actors had opportunities to interconnect with distant actors through those places(ba). In the spatial perspective, personal actors could make face-to-face contact and build trust through temporary geographical proximity or temporary clusters with the help of personal mobility. Relations in the virtual spaces such as the Internet community did much toward building personal networks.

Keywords : personal actor, network formation process, knowledge-creating process,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originating ba, interacting ba, cyber ba, exercising ba, mobility, temporary geographical proximity

* This study was presented at the "Korea-Japan Symposium of Economic Geography: Economic Geographies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hongju University, Korea, 17 May 2008).

** POST-DOC,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